連載 栽培教室

오 미 자
(五味子)

93신규회원을 위하여…

1、학명：Schizandra Chinensis Baillon

2、과명：목련과

3、성분：정유중 a-Chamigrene, B-Chamigrene

4、용도：자양、강정、진해약

5、약용부위：과실(實)

6、재배법

가、적지

○기후：몇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해발 3백m정도의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오늘에 와서는 재배가 대중화되어 남부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재배 가능하다.

○토질：배수가 잘되며 적습한 습윤양토로써 유지보다는 통풍이 잘되는 양지 바른쪽이 적합하다.

나、품종：오미자、남오미자、북오미자(개오미자)、흑오미자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주종이 오미자이다. 오미자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일 많이 수요되는 품종이다.

다、번식：분주、종자로 번식하며 묘종에는 분주묘와 실생묘가 있다.

라、재배요점

○식재시기：ㄱ。봄 3월~4월 중순

ㄴ。가을 10월~11월 중순(동결되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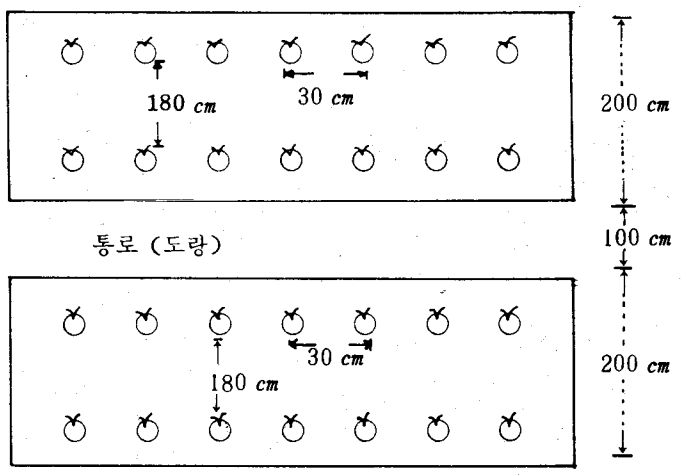
마、식재방법

○식재기준：3백평당(10a)：1천8백주~2천주(1평당 6~7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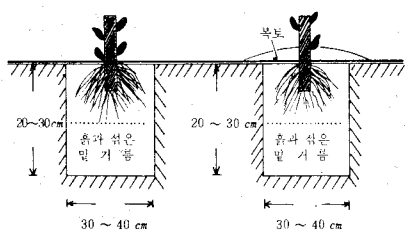
○식재할 때 드물게 심으면 발현성도 더디고 수확량도 떨어진다. 또한 밀식재배는 다수확은 되어도 5년후에 가서는 통풍도 잘안되고 햇빛을 고루 받지 못하여 병발생이 심하고 역으로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재배연구에 의해서 1평당 6~7주를 식재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좋다고 평가되었다.

바、식재거리

경사진 밭일 경우 윗쪽에서 부터 평평한 밭일 경우 어느 한쪽에서 부터 기준을 잡아 2백cm의 두둑을 만들고 1백cm통로(공간)을 띄우고 또 2백cm의 두둑을 반복하여 만들어간후에 그 두둑 위에 줄을 띄우면서 묘와 묘 사이는 30cm 간격으로 줄맞추어 심어 간다. 다음 심는 줄은 1백80cm를 띄우고 심는다. (다음 그림 참조)



사、식재방법(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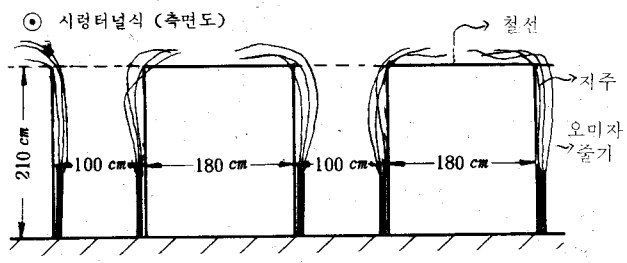
○식재시에는 묘목을 깊게 심지 말고 묘목의 크기를 보아서 구덩이를 적당하게 파고 묘목을 구덩이 안에 넣고 뿌리를 잘펴서 곧게 세우고 한손으로 보드라운 흙을 뿌리 사이에 채우면서 지면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게 흙을 채우고 묘목을 약간 상부로 들면서 묘목 주위를 발로 밟아 준다. 식재가 끝나면 그루밑에 수분증발을 방지해 주기 위해 짚(낙엽)이나 비닐로 덮어주고 비닐위에 흙을 덮어준다. (묘목줄기는 비닐 밖으로 노출되어야 한) 특히 봄에 식재시에는 식재후 즉시 비닐로 덮어 주고 비닐위에 흙을 덮어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기후적으로 봄가뭄과 초여름 가뭄(모내기 직전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 완전 활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7~8월경 고사율이 적어진다.(가을 식재시는 비닐멀칭이 필요없음)

○분주묘나 실생묘나 식재방법과 식재후 관리는 동일하다.

○분주묘는 실생묘에 비하여 활착율이 약간 떨어진다.

7、시비 및 관리

○시비：토질이 비옥한 곳이면 밑거름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성장과정을 보아가면서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토질이 비옥하지 못한 곳은 기비로써 퇴비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 오미자는 너무 무성하게 가꾸어 놓으면 3~4년후 수확시기에 줄기만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많이 맺지 않음으로 이점을 유의하여 가꾸어야 한다.



○관리：완전 활착되어 줄기가 30cm정도 자라면 오미자는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지주를 세워서 줄기를 위로 유도해 주어야 한다.

식재후 2년부터는 영구지주를 설치하여 마치 포도원처럼 만들어 주어야 수확할 수 있다. (지주 및 시렁 설치는 다음 그림을 참조)

○병충해 방지

ㄱ、오미자는 정식 2~3년간은 병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으나 건강한 나무를 위해서 예방방제를 해야 한다. 예방 소독은 보르드액 석회의 엽면 시비가 효과적이며 잎눈이 트기 전(3월중순) P·C·P·를 첨가한 석회 유황 합제를 2회에 걸쳐 살포하면 더욱 좋다. 살포량은 3백평당(10a)3백ℓ (대두 15말)정도이다.

ㄴ、낙엽기부터 싹이 트기까지 방제는 병충해가 있는 가지와 말라 죽은 가지를 제거해 주고 오미자 밭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소각해 는 것이 좋다.

ㄷ、개화기까지는 보르드액을 1~2회 살포한다.

*살포시 다른 살균제(톱신、프리욱신、디포라탄)을 썩여 쓰면 해충도 방제할 수 있다.

ㄹ、나화부터 수확까지 병충해 방제는 백분병、근부병、반부병、심식충、천우충、자벌레、진딧물 등의 해충이 발생함으로 1개월에 1회 정도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면 방제된다.(발생전 예방해야 한다)

8、수확및 조제

○수확시기：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3년부터수확할 수 있으며 수확적기는 열매가 붉게 익고 육안으로 보아서 과피에 약간 주름이 잡히는 10월 상순、하순경이 적기이다. 너무 조숙하거나 완숙된 오미자는 건조시에 과피의 색깔이 나빠 품질이 저하된다.

○조제：적과하여 명석위에 양건하거나 건조실에 건조한다. 수확량은 식재 년도별로 다음과 같다.

<300평당(10a)수확량>

구 분	생 과(kg)	건 과(kg)
• 식재 3년	600~ 900	200~300
• 식재 4년	900~1,500	300~500
• 식재 5년	1,500~2,700	500~900
• 식재 6년후	1,800~2,700	600~900

※ 오미자 수명이 다할때까지 계속 수확

※유의할 점

○봄식재시에는 봄가뭄과 초여름기물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검은색 비닐로 덮어 준다.(오미자 묘목만 밖으로 나오게 함)

○발아후 30cm 정도가 자라면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주를 설치하여 줄기를 유도해 주어야 한다.

○2년후부터는 영구지주를 설치하여 포도원같이 해주되 반드시 통로를 넓게 만들어 통풍과 햇빛이 잘 들게 해주어야 한다.

○꽃이 만개시에 가지를 인공적으로 흔들어 주어 수정을 도와주어야 하며 잎이 무성하게 통풍이 잘 안되고 햇빛이 잘 안들면 줄기 하단부에는 결실이 안되고 상부에만 결실이 됨으로 수확량이 감소된다.

○정식후 5~6년이 되면 나무가 노쇠되어 생산량이 감소되므로 2년째 1주두고 1주를 지상부위 5cm위를 잘라주어 신가지를 발생시키고 이듬해 이른봄에 자르지 않는 나무를 위와같이 잘라주어 신가지 발생을 유도해야 다수확을 할 수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협조

○… 서울특별시에서 총무 67503-1264호로(93년 7월 22일 접수) 사보발간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요청해왔으므로(사보게재후 자료 송부) 다음과 같이 홍보자료를 연재로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고 깨끗한 우리 환경만들기에 모두 참여토록 합시다. 〈편집자 주〉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20、재활용품의 보관방법은?

○종이류：종이류는 가지런히 끈으로 묶어 보관하고 박스는 접어서 묶고 우유팩은 내부를 씻은 후 펴서 말려 일정량을 모아 보관

○의류：의류는 깨끗이 세탁하여 이웃、친지와 돌려입고 내놓을 때는 묶어서

○유리병류：맥주병 등은 가게에 판매하고 기타 화장품병、드링크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보관

○캔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트려 부피를 작게해 보관

○고철류：나무 등 다른 물질은 떼고 고철부분만 따로 보관

○플라스틱：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보관

21、각종 재활용품이 새 제품이 되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종이류：1차선별→용해→채에 거름→건조→감는다→절단→제품

○병류：색상별 분류→파쇄→이물질제거→용해→절단→사출→제품

○고철류：성상별 분류→용융→케이스주입→가열로→압연→교정→제품

○플라스틱：파쇄→선별→세정→세척→분별→건조→균질혼합→가열압축→제품

22、일반주택의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수요일」로 정한 이유는?

대개 가정에서 재활용품은 일요일에 많이 발생되어 월요일에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월요일은 쓰레기의 양 또한 많기 때문에(환경미화원 일요일 휴무) 수요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정한 것입니다.

○… 년 7월 22일 접수) 사보발간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요청해왔으므로(사보게재후 자료 송부) 다음과 같이 홍보자료를 연재로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고 깨끗한 우리 환경만들기에 모두 참여토록 합시다. 〈편집자 주〉

〈3면에서 계속〉

로 위촉.

부락별로 지정된 수집장소에 농가별로 집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읍면에 통보.

읍면장은 수집책임자와 협의하여 수집장소별 순회일정을 확정、자원재생공사에 통보.

자원재생공사는 통보된 순회일정에 따라 차량으로 순회、수집.

○농약빈병 수집통 제작、전국 마을에 배부(종합환원사업등으로 추진)

○빈병지는 부락별 일제 회수의 날 지정하여 회수후 일제 소각.

수거된 빈병지의 일정장소 보관 관리→부락단위별 책임소각 유도.

3、비료 공포 대 및 폐비닐

○비료 공포대 수거 지역별 책임 담당제 실시.

행정 지도、농협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비료 생산업체 적극 참여 유도.

마을 단위 수집소 설치 및 관리 담당자 지정.

○폐비닐 수거 공동 작업 실시

작목반 및 마을 실정에 맞도록 수거일시 지정 공동 작업 추진.

중점 수거 기간 설정(못자리용、마늘、양파：5~6월、고추：10~11월 및 익년 3~4월)

수거된 폐비닐의 일정 장소 보관 관리→읍면에 수거 요청.

행정·지도·농협 합동 지도반 편성 독려.

○장기적으로 농업자재에는 분해성 비닐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조 추진.

분해성 비닐의 연구개발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상공부、과기처 등)에 협조 요청.

93년부터 농진청에서 분해성 비닐의 농업용 실용화 연구중.